

SOCIETY

오늘의 날씨

도시	날씨	기온
서울	구름	26~31
대전	구름	25~33
부산	맑음	26~32
대구	구름	25~34
강릉	맑음	27~34
제주	맑음	26~33
포항	맑음	26~35
경주	비	24~32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강주		25~35
	목포		26~34
	여수		25~33
	순천		24~34
	구례		24~35
강주	캠남		24~34
	함도		25~34
	흑산도		26~34
	고흥		24~34
	진도		24~33

목포	밀물 (고)	11:33 / --:--
	썰물 (저)	05:27 / 17:12
여수	밀물 (고)	07:02 / 19:47
	썰물 (저)	01:21 / 12:59

화재 대피 도운 택배기사

○...화재를 조기 발견해 주민 대피를 도운 택배기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눈길을 끌어.

19일 광주 남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불은 1층 한 세대대에서 시작됐고 주민들은 대피했지만 5층에 거주 중이던 50대 여성은 연기와 불길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때 택배기사가 아파트 외벽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여성이 2층으로 내려와 창문을 통해 화물차로 대피하도록 도왔다고.

구조된 주민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편, 남부소방은 화재현장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구현한 택배기사
에게 자체 포상을 추진한다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자신 돌봐준 지인 집 침입...현금 10만원 훔치고 도주

함소식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보훈단체 반발 속 정율성 흉상 복원 '제동'

김병내 남구청장 “복원 신중히 검토할 것”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청도서 선로 작업자 열차에 치여...2명 사망·5명 중경상

연합뉴스

‘골재채취 인허가 개입 의혹’ 직원, 혐의 부인

광산구 산하기관

당시 B씨는 골재채취업 허가 기간이 끝
난 뒤 불법으로 사업을 이어갔다는 의혹
을 받고 있었고, 농경지 원상 복구를 조건